

# DAEWON NEW YEAR'S



2024

대원문화재단 신년음악회

DAEWON NEW YEAR'S CONCERT 2024

# CONCERT 2024

*“The moment you must begin  
with quality classic music concert”*



안녕하십니까.

2024년 대원문화재단 신년음악회를 찾아 주신 모든 분들께 새해 인사를 전합니다.

클래식 음악과 음악가들에게 한결같은 애정을 보내주시는 메세나 기업인들과 청중을 모시고 함께 하는 대원문화재단 신년 음악회가 5회를 맞이합니다. 팬데믹을 거치며 2년의 기다림 끝에 열렸던 2023년 1월의 음악회는 청중 여러분의 박수갈채로 멋지게 마무리되었습니다. 2024년의 신년음악회는 그간 우리를 방해했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날개를 다시 펼치는 기쁜 시작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올해의 프로그램은 그 기쁨과 환희를 표현하고자 클래식 작품 중 가장 화려하며, 변화무쌍한 악상으로 즐거움을 주는 ‘광시곡’ 들을 모았습니다. ‘광시곡’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작곡가가 자유롭게 상상력을 펼치는 작품으로, ‘랩소디’라고도 부릅니다. 프랑스 작곡가 샤브리에의 광시곡 ‘에스파냐’, 루마니아 작곡가 에네스쿠의 ‘루마니아 광시곡 1번’이 연주되며, 헝가리 작곡가 프란츠 리스트의 ‘헝가리 광시곡 2번’이 음악회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음악회 1부의 협연자는 탁월한 피아노 실력은 물론이고, 프로그램 기획과 페스티벌의 리더 등 만능 음악인으로 활동하는 손열음입니다. 손열음이 연주하는 리스트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은 피아노의 모든 기교를 만끽할 수 있는 명곡입니다. 여기에 서울시립교향악단, 지난 해 신년음악회 지휘를 맡았던 성시연 (제11회 대원음악상 연주상 수상)이 힘을 합칩니다. 서울시향 부지휘자를 거친 후 경기 필 음악감독, 보스턴 심포니 최초의 여성 부지휘자로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는 성시연의 힘찬 지휘봉이 기대됩니다. 아울러 이번 신년음악회는 숨겨진 서프라이즈로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전달합니다. 전반과 후반에 마련될 앙코르 순서가 그것으로, 이번 음악회의 주제와 연관된 작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삶 속에 음악이 있다면 그 인생은 진정 행복한 것입니다. 대원문화재단은 음악의 아름다움을 소중히 지키고, 더 높은 예술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 오늘도 정진하는 우리 음악인들을 돕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성원해 주시는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올해도 전진하겠습니다.

용맹과 지혜, 힘을 상징하는 푸른 용의 해 2024년,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원문화재단 이사장 김 일 곤



# 2024 대원문화재단 신년음악회

DAEWON NEW YEAR'S CONCERT 2024



지휘 성시연

SHIYEON SUNG

&

YEOL EUM SON

WITH

SEOUL PHILHARMONIC



피아노 손열음

연주 서울시립교향악단



2024년 1월 6일(토) 저녁 5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프란츠 리스트 1811-1886

피아노 협주곡 1번

Franz Liszt | Piano Concerto No. 1

*intermission*

에마뉘엘 샤브리에 1841-1894

랩소디 “에스파냐”

Emmanuel Chabrier | Rhapsody “España”

제오르제 에네스쿠 1881-1955

루마니아 랩소디 1번

George Enescu | Romanian Rhapsody in A Major Op.11 No.1

프란츠 리스트 1811-1886

헝가리 랩소디 2번

Franz Liszt | Hungarian Rhapsody No. 2

\* 본 공연의 프로그램은 아티스트의 요청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Program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 ‘랩소디’, 영감과 광기의 사이에 놓인 음악가의 흔적

해설 | 김주영 (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 피아니스트)

영혼의 흔들림 없이 걸작이 탄생할 수는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작곡가들 대부분은 혼란스런 꿈과 환상, 그 속에서 간신히 건져 올린 아이디어와 음악의 신 뮤즈의 은혜로 빚어낸 음표들을 통해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알린다. 내면의 귀에서 들려온 소리를 실체가 있는 아름다움으로 만들기 위해 한없이 자유로워야 하는 것이 그들의 본질인 바, 결국 표현의 편의상 만들어 낸 작품의 형식이나 구조는 차선의 개념으로 밀려나야 할지도 모른다.

랩소디, 흔히 광시곡으로 번역되는 작품들은 작곡가들의 자유로운 판타지를 원형 그대로 나타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 결과 클래식 역사 속 등장하는 랩소디들은 위대한 음악가들의 솔직한 내면을 그리고 있다. 오늘 밤 연주될 낭만시대 최고의 랩소디들, 그리고 리스트의 마스터피스인 피아노 협주곡 1번은 세상 모든 것의 굴레에서 온전히 벗어난 예술가들의 가장 창의적인 몸짓이자 그것이 만들어낸 흔적이다.

### 프란츠 리스트 | 피아노 협주곡 1번

Franz Liszt | Piano Concerto No. 1

프란츠 리스트는 단순히 음악가나 피아니스트라고 보기 힘든, 당대 최고의 인기인이자 문화계의 중심인물이었다. 그의 음악회는 귀족 여성들의 히스테리에 가까운 환호성이 난무하는 사회현상이었다. 여성들은 그에게 꽃다발 대신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던 보석을 던졌으며, 나이를 먹고 천주교의 사제가 된 후에도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로 여겼다. 청중들을 사로잡은 그의 무기는 피아노를 통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과 아무리 어려운 작품도 그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드는 투사의 이미지였다. 리스트의 작품을 연주할 때 갖춰야 하는 첫 번째 덕목이 ‘용기’ 여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라틴어 ‘비르투스’에서 비롯된 ‘비르투오소’, 우리말로 ‘대가’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의 뜻은 ‘위험을 무릅쓰는 자’라는 의미이다. 자신을 지배했고, 자신이 창조했던 거대한 음악의 파도 앞에 늘 당당했던 비르투오소, 리스트의 신화는 또 다른 비르투오소들을 통해 온전히 이어지고 있다.

리스트의 본질인 비르투오소적 풍모가 매우 적절하게 드러나는 그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화려한 외향적 요소만으로 평가한다면 작품의 일부만을 즐기는 것이 된다. 리스트의 대부분 작품처럼, 이 곡 역시 여러 차례 개

작과 보완이 걸쳐 이루어졌으며 작곡가 자신을 포함해 수많은 명인들이 건반 앞에서 작품의 위대함을 증명해 왔다. 작곡가의 나이 19세였던 1830년 최초의 구상이 시작된 이 곡은 1849년에 이르러서야 최종 버전이 만들어졌고 1853년에도 한 차례 수정되었다. 1855년 2월 작곡가의 피아노 독주와 베를리오즈의 지휘로 초연이 이루어진 후인 1856년에도 수정이 되풀이되었다는 사실은 작품에 가진 리스트의 관심과 애정을 대변해 준다. 발표 당시 평론가 한솔릭이 표현한 ‘트라이앵글 협주곡’이란 비판 섞인 지적은 작품의 3악장 첫머리에 등장하는 트라이앵글 소리 때문인데, 그의 시각과 상관없이 이 작품에는 피아니스트의 강한 존재감을 오케스트라 속 다양한 악기들과의 입체적인 앙상블을 통해 강조하려는 독창적인 시도들이 가득하다.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4악장 구성의 협주곡은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장엄하고 빠르게)의 지시어가 붙은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팡파레로 시작한다. 1주제는 곧바로 피아노의 카덴차로 이어지고, 우아하면서도 애수를 뽐낸 2주제는 오보에와 바이올린 등으로 소개되는데 재현부에서는 생략된다. 2악장의 주제는 첼로와 더블베이스에 의해 등장한다. 애뜻한 동경을 품은 멜로디는 녹턴 풍으로 전개되는데, 중간 부 이후 클라리넷, 오보에, 첼로 등과 어우러져 새로운 모티브를 대화하듯 연주하는 피아노의 기법이 아름답다. 예의 트라이앵글로 시작하는 3악장은 스케르초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현악기와 피아노가 차례로 탄력 있는 주제를 연주하며, 악장 후반부에 나오는 피아노 카덴차에는 1악장의 동기가 나타나 통일성을 꾀한다. 돌진하듯 이어지는 4악장은 행진곡 풍의 악상으로 시작한다. 이전 악장들에 등장했던 주요 모티브들을 피아노가 차례로 소개하며, 단계적으로 빨라지는 템포를 통해 악상 속에 숨겨진 긴박감과 현란함을 증대시키며 절정을 향해 치달는다.

### 에마뉘엘 샤브리에 | 랩소디 “에스파냐”

Emmanuel Chabrier | Rhapsody “España”

지금까지 변치 않는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작곡가들 중 많은 숫자가 자신의 열정이나 재능과 상관없는 직업을 가진 채 음악활동을 했다. 에마뉘엘 샤브리에도 그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로, 변호사였던 아버지의 고집으로 법학을 전공했고 약 18년 간 프랑스 내무부에서 공무원으로 일했다. 인상파 미술에 대해 뛰어난 예지감과 식







견을 지녔던 그의 독특한 작품에 대해 많은 이들은 오히려 체계적이지 못했던 그의 음악 수업에서 이유를 찾기도 한다. 바그너의 영향과 프랑스의 향취를 동시에 지닌 10여 편의 오페라와 오페레타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 외 피아노 소품과 40여 곡의 가곡 등에서는 우아하면서도 기발한 센스가 넘치는 샤브리에의 독창적 세계를 엿볼 수 있다.

그의 최대 히트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를 위한 랩소디 '에스파냐'는 1882년 7월부터 12월까지 아내와 여행한 스페인의 여러 지방에 대한 인상을 흥겨우면서도 집약적으로 담은 걸작이다. 스페인의 이국적 정서에 취한 샤브리에의 여행에서 돌아오기 전인 10월에 파리 청중들을 흥분에 빠트릴 특별한 곡을 만들 것이라 호언장담했으며, 1883년 11월 초연된 이 곡은 처음부터 평단과 청중들 모두에게서 극찬을 받는 히트작이 되었다. 작품은 스페인 북동부지역인 아라곤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지는 '호타' 리듬을 타고 전개되며, 트럼펫으로 연주되는 1주제와 바순이 맡는 2주제, 현악기가 낙천적으로 연주하는 3주제가 번갈아 등장해 스페인의 풍광과 그들의 노래를 즐겁게 표현한다.

### 제오르제 에네스쿠 | 루마니아 랩소디 1번

George Enescu | Romanian Rhapsody in A Major Op.11 No.1

음악사상 천재라고 부를 수 있는 인물은 참으로 많지만, 루마니아 태생의 제오르제 에네스쿠 역시 모차르트에 비견될만한 재능을 어려서부터 타고 난 음악가였다. 만 7세에 빈 음악원에 입학해 바이올린을 공부한 에네스쿠는 13세인 1894년 브람스와 교류하며 훗날 자신의 교향곡 스타일에 대한 힌트를 얻었으며, 그 후 파리로 자리를 옮겨 작곡과 바이올린을 계속 공부해 작곡가, 바이올리니스트, 교육자로서의 경험을 쌓기 시작했다. 바이올린 연주로는 특히 바흐의 해석에 권위가 높았고, 파리 에콜 노르말 음악원의 교수로 일하며 예후디 메뉴인, 아르투르 그뤼미오, 크리스티앙 페라스 등 20세기 최고의 연주자들을 길러내기도 했다. 또한 루마니아 국민음악의 완성자라고 불리는 작곡가로서 교향곡, 실내악, 피아노 소나타 등에서 동유럽의 고유한 색채와 인상파적 뉘앙스가 느껴지는 개성 넘치는 작품을 만들어냈다.



그의 작품 가운데 가장 대중적인 루마니아 광시곡 1번은 1901년 작으로, 이듬해 만들어진 2번과 작품번호 11로 함께 소개되었다. 1903년 부쿠레슈티에서 초연될 당시 22세였던 젊은 에네스쿠는 스스로 “별다른 구성 없이 몇 개의 춤곡을 묶은 것”이라 설명했다. 처음 등장하는 모티브는 에네스쿠의 첫 번째 바이올린 선생님이 연주하던 루마니아 민요 가락을 인용한 것이며, 이내 오케스트라는 이를 받아 즉흥적인 흥분이 섞인 춤곡을 전개한다. 그 뜨거움 속에는 슬라브와 집시 음악적인 요소가 동반돼 있어 강한 인상을 남긴다.

### 프란츠 리스트 | 헝가리 랩소디 2번

Franz Liszt | Hungarian Rhapsody No. 2

양친이 모두 독일인이었으나 헝가리에서 그 지역의 민속 음악과 춤을 온 몸으로 흡수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던 리스트는 자신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헝가리인 이라는 사실을 생의 마지막까지 잊지 않고 고향의 음악에 대한 식지 않는 애정을 보였다. 그런 면에서 19곡에 달하는 헝가리 광시곡은 리스트 음악의 뿌리이자 본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중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은 2번 C# 단조로, 흡인력 있는 멜로디와 강렬한 리듬이 어우러져 처음 듣는 이들에게도 잊지 못할 음악적 체험을 제공하는 곡이다. 다만 리스트가 사용한 '헝가리적' 모티브와 리듬은 대부분 그 지역에 살던 집시 민족의 오리지널이었다는 반드시 언급해야 할 것이다.

1847년 완성돼 헝가리 출신의 작가이자 정치가였던 라슬로 텔레키 백작에게 헌정된 이 작품은 1851년, 당시 설립된 지 1년밖에 안 된 신생 출판사 바르톨프 쉰프에서 피아노곡으로 먼저 출판되었다. 이 작품은 리스트의 다른 랩소디 5곡과 함께 1857년부터 1860년까지 오케스트라로 편곡되었으며, 리스트의 동료였던 프란츠 도플러가 함께 작업했다. 이후 여러 편곡들이 이어졌는데, 현재 연주되는 버전 중에는 도플러와 칼 뮐러 베르그 하우스의 편곡이 인기다. 구성은 진지함과 슬픔을 머금고 있는 선율이 탄식조로 이어지며 서정성을 과시하는 '라산' 부분과, 빠른 템포 속에서 강한 액센트와 당김음이 등장해 흥분을 더하는 '프리스카' 부분이 이어진다. 현란하고 변화무쌍한 관현악의 매력을 온전히 맛볼 수 있는 명곡인데, 최후의 클라이맥스 직전 리스트가 만들어 놓은 잠깐의 휴지부가 감상자들의 호흡과 맥박을 한 차례 더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CONDUCTOR

SHIYEON SUNG



## 지휘 성시연

● 지휘자 성시연은 2006년 게오르그 솔티 국제 지휘 콩쿠르 우승, 2007년 구스타프 말러 지휘 콩쿠르 1위 없는 2위 수상 이래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열정을 갖춘 지휘자로 자리매김 하였다. 2007년 보스턴 심포니 역사상 최초의 여성 부지휘자로 임명되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으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로 활동하였다. 2014년 경기필하모닉 예술단장 겸 상임지휘자로 임명, 4년의 임기동안 그 역량을 국내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5년 동 오케스트라의 유럽 투어를 이끌었고, 2017년 유럽의 권위 있는 음악축제인 '무지크페스트 베를린(Musikfest Berlin)'으로부터 아시아 오케스트라 최초로 초청받아 연주하였으며, 세계적인 클래식 레이블 '데카(Decca)'에서 말러 교향곡 5번 음반을 발매하기도 하였다. 2018년 오페라 <라보엠>으로 국립오페라단과의 성공적인 데뷔 무대를 이끌었고, 2019년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로 재초청받아 오페라 지휘자로서의 커리어도 쌓아가고 있으며, 서울시향을 비롯한 국내 주요 단체들과의 호흡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뉴질랜드의 명문 오클랜드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첫 수석 객원지휘자로 임명되어 2023년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2021년 11월 5일, 세계 최정상급 교향악단인 네덜란드의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와의 성공적인 데뷔 공연에 이어, 2022년 7월에는 독일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데뷔 무대를 성황리에 마치며 세계 정상급 악단들과 호흡을 맞추고 있다. 2021/22 시즌 아틀란타 심포니, 스페인 국립 관현악단, 유타 심포니 등을 이끌었고, 2022/23 시즌 영국의 로열 필하모닉, 스웨덴 챔버 오케스트라 등과의 데뷔를 앞두고 있다. LA 필하모닉, 시애틀 심포니,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도이치 방송 교향악단,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공연하였고, 2018/19 시즌 과거 부지휘자로 활동한 보스턴 심포니로부터 다시 초청받아 정기공연을 지휘한 바 있다.

성시연은 2015년 제23회 문화체육관광부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2016년 제9회 공연예술경영상 올해의 공연 예술가상, 2017년에는 제11회 대원음악상 연주상을 수상하였다. 2017년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연주한 '윤이상 100주년 기념음악회'는 이데일리 문화대상 클래식 부문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DAEWON NEW YEARS CONCERT 2024





PIANIST  
YEOL EUM SON

## 피아노 손열음

- 손열음은 2011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14회 차이콥스키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준우승 및 모차르트 협주곡 최고 연주상, 콩쿠르 위촉 작품(로디온 세드린의 연습곡) 최고 연주상을 차지하며 세계 음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미 만 열 여덟의 나이로 거장 로린 마젤에게 발탁돼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2004년 아시아 투어의 솔리스트로 함께 한 그녀는 이듬해인 2005년 NHK 교향악단, 도쿄 필하모닉과 차례로 데뷔 무대를 가지며 빠르게 이름을 알렸다.

발레리 게르기예프가 이끄는 마린스키 오케스트라, 체코 필하모닉, 로테르담 필하모닉, 드미트리 키타옌코가 이끄는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쾰른 귀르체니히 오케스트라, 드레스덴 필하모닉, 베르겐 필하모닉, 톤퀸스틀러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하며 라베나, 류블리아나, 발틱 시, 그라페넥 페스티벌 등 유럽 주요 무대로 진출했다. 이외에도 블라디미르 스피바코프, 로렌스 포스터, 수잔나 멜키, 조나단 노트, 앤드류 맨지, 파블로 곤잘레스, 에도 데 바르트 등의 지휘로 모스크바 비르투오지, 스베틀라노프 심포니(구 USSR 스테이트 심포니),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니,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 시티 오브 버밍엄 오케스트라, 아이슬란드 심포니, 리에주 왕립 필하모닉, 스페인 RTVE 심포니 및 바르샤바, 자그레브, 베오그라드, 소피아 필하모닉 등 유럽의 수많은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였으며 시애틀 심포니, 디트로이트 심포니, 시드니 심포니, 멜버른 심포니 등 미국과 오세아니아 지역의 다수의 악단들과도 협업하였다.

손열음이 연주한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연주 영상은 현재 유튜브에서 모차르트 작품을 실황으로 연주한 콘서트 영상 중 최고치인 2100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2016년에는 같은 곡을 영화 <아마데우스>의 음악감독 네빌 마리너 경,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ASMF)와 함께 녹음하며 “명징함과 날렵함의 상징(타임즈)”, “보기 힘든 모차르트적 데뷔(그라모폰)” 등의 찬사를 받았다. 2019년, 지상 최대의 클래식 음악축제인 BBC 프롬스 무대에서도 BBC 필하모닉과 악단의 상임지휘자인 오메르 마이어 벨버의 지휘로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15번을 연주하였다.

‘한국예술종합학교하면 떠오르는 인물’ 1위로 뽑히기도 했던 손열음은 2002년 영재과정으로 입학한 이 학교에서 김대진을 사사하고, 하노버 국립음대의 마스터와 최고연주자과정에서 아리에 바르디와 공부했다.







#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 오케스트라 서울시립교향악단

- 1945년 설립된 고려교향악단을 연원으로 하는 서울시향은 2005년 재단법인으로 독립한 이후, 첫 음악감독인 정명훈 지휘자의 리더십 아래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국제적으로 성장하였고, 2020년 1월 핀란드 출신의 세계적 지휘자 오스모 벤스케가 제2대 음악감독으로 취임했다. 2024년부터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으로 활동 중인 네덜란드 출신 얀 판 츠베덴 지휘자가 서울시향 제3대 음악감독으로 활동한다.

세계적 수준의 객원지휘자, 협연자가 함께하는 정기연주회는 탁월한 음악적 성과와 프로그래밍으로 한국 클래식 음악계를 주도하고 있다.

전문 공연장에서의 공연 외에도 '우리동네 음악회', '광복절 기념음악회' 등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공연을 진행하고 있으며 '음악 이야기', '음악수업 2교시', '교과서 음악 영상화' 등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을 체계화하여 예술적 요청과 공공적 요청을 조화롭게 구현해나가고 있다.

2010년 이탈리아, 독일, 체코, 러시아 등 유럽 4개국 9개 도시 투어, 2011년 에든버러 페스티벌 등 유럽 페스티벌 투어, 2012년 로스앤젤레스 등 북미 투어에서 평단과 관객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2014년에는 영국 BBC 프롬스를 비롯한 유럽 4개 도시 페스티벌 무대에 올라 관객과 현지 언론으로부터 큰 찬사를 받았고, 2015년에는 중국 국가대극원과 일본 산토리홀 초청 공연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아시아의 주요 오케스트라로서 입지를 다졌다. 2018년 유럽 순회공연을 통해 파리, 루체른 등에 최초로 진출했으며, 2019년에는 한려수고 30주년과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러시아 3개 도시 순회공연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문화외교 사절로서의 역할을 다하였다. 2022년에는 잘츠부르크, 암스테르담, 빈, 런던 4개 도시에서 순회공연을 진행하며 명실공히 아시아 최정상급 오케스트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2011년 세계적인 클래식 음악레이블인 도이치 그라모폰(DG)과 계약을 맺고 말러와 차이콥스키, 베토벤 등의 대표 작품이 담긴 음반을 출시하였다. 2022년에는 스웨덴의 명문 음악 레이블 비스(BIS)를 통해 윤이상 작품들이 담긴 음반을 출시했다.





# DAEWON CULTURAL FOUNDATION NEW YEAR'S CONCERT



## 제1회 대원문화재단 신년음악회

2018.01.25(목) 저녁 8시  
롯데콘서트홀

지휘 | 바실리 시나이츠키  
피아노 | 백건우  
연주 | 서울시립교향악단

프로그램  
차이콥스키 | 피아노 협주곡 제1번 b flat 단조 작품 23  
차이콥스키 | 교향곡 제5번 e단조 작품 64

## 제2회 대원문화재단 신년음악회

2019.01.04(금) 저녁 8시  
롯데콘서트홀

지휘 | 요엘 레비  
피아노 | 조성진  
연주 | KBS교향악단

프로그램  
라흐마니노프 | 피아노 협주곡 제3번 d단조 작품 30  
차이콥스키 | 교향곡 제6번 b단조 작품 74 '비창'

## 제3회 대원문화재단 신년음악회

2020.01.05(일) 저녁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정명훈  
바이올린 | 클라라 주미 강  
연주 | 서울시립교향악단

프로그램  
브루흐 |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g단조 작품 26  
브람스 | 교향곡 제1번 c단조 작품 68

## 제4회 대원문화재단 신년음악회

2023.01.07(토) 저녁 7시 30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성시연  
피아노 | 김선욱  
연주 | KBS교향악단

프로그램  
브람스 | 피아노 협주곡 1번 d단조 작품 15  
슈베르트 | D.956 아다지오 (박해진 편곡)  
라벨 | 볼레로 M.81

# DAEWON MUSIC AWARDS

## 제1회 대원음악상 시상식 (2006.12.26)

- 대원음악상 대상 | 정명훈 (지휘)
- 대원음악상 작곡상 | 강석희
- 대원음악상 공로상 | 이강숙 (음악평론)



## 제2회 대원음악상 시상식 (2007.12.26)

- 대원음악상 대상 |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 대원음악상 작곡상 | 진은숙
- 대원음악상 장려상 | 강승민 (첼로)  
성민제 (더블베이스)  
장유진 (바이올린)



## 제3회 대원음악상 시상식 (2008.12.11)

- 대원음악상 대상 | 백건우 (피아노)
- 대원음악상 연주상 | 과르텟21
- 대원음악상 작곡상 | 박인호
- 대원음악상 특별공헌상 | 세종 솔로이스츠



## 제4회 대원음악상 시상식 (2009.12.04)

- 대원음악상 대상 | 강동석 ·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 대원음악상 연주상 | 양성원 (첼로)
- 대원음악상 특별공헌상 | 임헌정 (지휘)



## 제5회 대원음악상 시상식 (2010.12.15)

- 대원음악상 대상 | 강효 · 대관령국제음악제
- 대원음악상 연주상 | 연광철 (베이스)
- 대원음악상 작곡상 | 백병동



## 제6회 대원음악상 시상식 (2011.12.14)

- 대원음악상 대상 | 서울시립교향악단
- 대원음악상 연주상 | 서울모테트합창단
- 대원음악상 신인상 | 조성진 (피아노)
- 대원음악상 장려상 | 박종민 (베이스)





제7회 대원음악상 시상식 (2013.1.21)

- 대원음악상 대상 | 조수미 (소프라노)
- 대원음악상 연주상 | 클라라 주미 강 (바이올린)
- 대원음악상 장려상 | 전민재 (작곡)
- 대원음악상 특별공헌상 | 김남윤 (바이올린)



제8회 대원음악상 시상식 (2014.1.13)

- 대원음악상 대상 | 정경화 (바이올린)
- 대원음악상 연주상 | 사무엘 윤 (베이스바리톤)
- 대원음악상 장려상 | 이수빈 (바이올린)
- 대원음악상 특별공헌상 | 故 이운형 (세아그룹 회장)



제9회 대원음악상 시상식 (2015.1.12)

- 대원음악상 대상 | 연광철 (베이스)
- 대원음악상 연주상 | 김선옥 (피아노)
- 대원음악상 신인상 | 노부스 콰르텟



제10회 대원음악상 시상식 (2016.3.7)

- 대음악상 대상 | 김 민 (지휘, 바이올린)
- 대원음악상 신인상 | 임지영 (바이올린)
- 대원음악상 특별공헌상 | 신수정 (피아노)



제11회 대원음악상 시상식 (2017.3.6)

- 대원음악상 대상 | 김대진 (피아노, 교육, 지휘)
- 대원음악상 연주상 | 성시연 (지휘)
- 대원음악상 특별공헌상 | 박영희 (작곡)



제12회 대원음악상 시상식 (2019.4.16)

- 대원음악상 대상 | 조성진 (피아노)
- 대원음악상 신인상 | 양인모 (바이올린)
- 대원음악상 특별공헌상 | 이규도 (성악)



## ABOUT DAEWON CULTURAL FOUNDATION

### 장 학 사 업



● 대원문화재단은 한국 음악인들이 예술적 기량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전도유망한 젊은음악인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설립 초기에 '대원예술인' 제도를 마련하여 피아니스트 김선욱, 피아니스트 김태형 등 선정된 음악인에게 최소 1년간의 장학금을 포함하여 국내외 음악 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피아니스트 임동혁, 피아니스트 김준희, 작곡가 신동훈을 후원하였으며, 2020년에는 2019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에서 15세의 최연소 나이로 1위를 차지한 피아니스트 임윤찬을 후원하는 등 클래식 음악계의 유망한 젊은 음악인들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 후 원 결 연

● 대원문화재단은 음악인들이 안정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기량 향상에 보다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이음악인을 후원하도록 주선하는 등 메세나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하는 기업을 꾸준히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음악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원문화재단은 피아니스트 김준희와 포니정 재단, 바이올리니스트 장유진과 에이스테크놀로지,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주)케이디캠, 피아니스트 김종윤과 (주)올림푸스한국, 바이올리니스트 신현수와 (주)경농, 첼리스트 이세인과 익명의 후원자, 베이스리스트 성민제와 (주)세라젬,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과 (주)동성코퍼레이션(구 동성홀딩스), 소프라노 임선혜와 (주)트리코인베스트먼트, 지휘자 성시연과 (재)설원량문화재단, 피아니스트 임동혁과 (재)설원량문화재단, 피아니스트 문지영과 대신증권, 바이올리니스트 이수빈과 시공테크 등 음악인들과 기업의 결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 최초로 2015쇼팽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

지한 피아니스트 조성진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케이디캠(주)으로부터 지속적인 후원을 받고 있으며, 퀸 엘리자베스 국제 음악 콩쿠르 우승자인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은 아주산업으로부터 지속적인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 음악제 및 음악인(단체) 후원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대관령국제음악제

- 대원문화재단은 클래식음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돕고자 정통 클래식 음악제와 공연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매해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를 후원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대관령국제음악제'를 매해 후원하여 수준 높은 음악제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뜻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야음악회, 피아니스트 백건우 베토벤 소나타 전곡 연주회, 베이스 연광철 리사이틀, 바이올리니스트 김남윤 정년 기념 음악회 등 높은 음악성을 추구하고 지켜내고자 하는 우리 음악인들의 공연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 클래식 음악의 청중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음악인들과 음악 단체들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음악계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 3월에는 예술교육 석좌기금을 조성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 이강숙 교수를 지원하였습니다. 우수한 음악평론가 양성을 위한 노력에도 뜻을 함께 하여 2010년~2012년 객석예술평론상을 후원하는 등 한국 클래식음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 교육 지원 사업

- 대원문화재단은 음악전공자와 전문음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습니다. 2006년부터 (사)한국지휘자협회가 주최하는 '지휘캠프'를 3년 동안 후원하여 신진 지휘자들이 국내외 저명한 지휘자로부터 집중 교육과 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으며, 한국 피아니스트들을 위한 열린 광장인 '오픈 피아노 포럼'을 후원하였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 예술문화기금,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발전기금을 기부하여 국내 음악대학의 시설 및 연구 환경 개선을 돕는 등 음악인을 위한 전문교육의 발전에 뜻을 더하였습니다.

또한, 대원문화재단은 국내 기업인들과 클래식 음악의 만남을 통한 문화 크리에이티브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해 왔습니다. '뮤직 앤 커피' 프로그램은 기업인들이 예술애호가에게 들어설 수 있도록 교육과 소통의 장을 제공하여 우리 기업인들이 메세나의 정신을 알고 예술후원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뮤직앤커피



지휘캠프

기업음악회 기획자문 및 후원

● 대원문화재단은 기업과 음악의 보다 적극적인 만남을 주선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주최하는 음악회 기획을 자문하여 우리 기업들이 음악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008년 5월에 개관한 포니정 홀의 개관 음악회는 공연장 설계부터 음악회 프로그램, 연주자 선정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예술컨설팅을 담당하였습니다.

2008년 7월에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제5회 국제청합창단 정기연주회, 2008년, 2009년, 2013년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개항 기념 콘서트, 2009년~2012년 인천국제공항공사 Sky Music Festival, 2009년 10월 SERI 8주년 기념음악회, 2010년 10월 세아제강 창립 50주년 기념음악회, 2013년~2014년 신한 TOP CEO 송년음악회 등 다양한 기업들이 주최하는 음악회에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재)대원문화재단

이 사 장 | 김일곤  
사무국장 | 박문선  
차 장 | 여연지  
전문위원 | 김주영  
전문위원 | 류태형  
전문위원 | 이지영

디 자 인 | 이동준  
인 쇄 | 예인미술



Daewon Artist Fellowships . since 2005

Daewon Music Awards . since 2006

한국 클래식 음악계에 기업의 사회공헌과 메세나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www.daewonculture.org](http://www.daewonculture.org)